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 예고보도(2018.3.19.)

3/21(수), 2022학년도 수능 및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 개최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21일(수) 오전 11시에 단체 대회의실에서 교육부가 올해 8월까지 확정하기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 교육부는 지난 2월 23일(금)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대입정책포럼(4차)을 개최하였고 3월 내에 시안을 확정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됨.
- ▲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수능 평가방식은 물론이고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을 비롯해 현행 대입전형 방식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3일(금)에는 제4차 대입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시행될 대입제도 개편방안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대입정책포럼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까지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과 국가교육회의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남은 상황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시안을 3월 중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교육부가 올해 8월까지 발표하기로 한 ‘2022학년도 수능 및 대입제도 종합안(이하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을 마련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하면서도 대학 및 시민단체 등 의견을 달리하는 교육주체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저희 단체가 제시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은 교육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는 단기적 방안의 성격을 지니며, ‘공교육 정상화’, ‘대학 서열화 완화 및 해소’,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등 입시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안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노웅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및 대입제도 종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차 대입정책포럼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숙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확정된 저희 단체의 안은 지난 해 논란이 되었던 수능 평가방식은 물론이고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을 비롯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각의 대입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혁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자리이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일 시 : 2018. 3. 21.(수) 11시

■ 주요내용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의 지향점

△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 등의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제안

△ 학생부 종합전형 개편안 등 현행 대입전형별 개편 방안 제안

2018. 3.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분창(02-797-4044/내선번호 511)